

교회됨

-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에 담긴 증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희준 (QTM, 편집자)

I. 들어가는 말

II.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 속 증인의 개념

1.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2. 교회로서의 증인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5>

• ABSTRACT •

Being the Church: the Concept of Witness in the Theologic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Dr. Kim, Heejun (QTM Editor)

This article seeks to introduce Stanley Hauerwas'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s a communal witness, in order to offer an alternative reading of Hauerwas's theological ethics in the Korean context. After examining with the concept of witness what kind of community Hauerwas has postulated, this article shows how and why that community needs to be distinguished as the church. The concept of witness in Hauerwas's theological ethics includes both th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s as the agent of hospitality and truthfulness. In this understand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mmunity Hauerwas presents should be the church where the God of Scripture is worshipped and where the distinctive character and story of God revealed in Christ are lived out as a gift for and an alternative to the world.

Key words: Stanley Hauerwas, Theological Ethics, Witness, Church, Community

I. 들어가는 말

2001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미국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그 명성 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아온 학자다.¹⁾ 그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비단 그의 연구 및 강의의 주 무대인 영미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6년 부터 하우어워스의 저서가 꾸준히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그의 신학적 윤리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작업 중 하나인 *The Peaceable Kingdom* 이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²⁾

이 가운데 그의 신학적 윤리학 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논문은 그의 연구에 담긴 증인의 개념을 제안하려 한다.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유명한 명제인 “교회가 곧 사회윤리”³⁾를 이해하기 위해선 교회됨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교회의 선교 그 자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강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⁴⁾ 즉, 그의 증인의 개념은 선교 그 자체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the good news)”이 되는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다.⁵⁾ 증인이 없다

1) Jean Bethke Elshtain, 2001년 9월 17일, Theologian: Christian Contrarian, <http://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1000859,00.html>, 2022년 3월 10일. 물론 하우어워스는, ‘최고’는 신학적 범주가 아니라고 에둘러 손사래를 쳤다.

2)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홍종락 역,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서울: 비아토르, 2021).

3) Stanley Hauerwas, *The Work of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5), 181. 하우어워스는 『교회됨』의 원제목인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에 자신이 어떻게 “Social(사회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4) Stanley Hauerwas, *The War and the American Difference: Theological Reflections on Violence and National Identit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167~168.

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하우어워스는 말한다.⁶⁾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과 그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증인이 없다면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에 예수와 증인의 존재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이며, 예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말하기 위해 반드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다른 이야기들에 주어진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하우어워스는 주장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는 “증인들을 통해 발견된다.”⁷⁾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 속 증인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자신이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2001년 기포드 강의, ‘우주의 결(the Grain of the Universe)’에서다. 여기서 그는 ‘자연신학에서 통용되는 이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기포드 강의의 전통적 주제에 맞추어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 그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를 비교하며 그들의 주요 사상을 분석하고 그에 덧붙여 자신의 신학적 윤리학은 어떻게 다르며 무엇에 공헌하는지를 주장한다. 하우어워스는 종국적으로는 ‘우주의 결과 함께(With the Grain of the Universe)⁸⁾로 출판된 이 작업 속에서 제임스와 니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 선 비판을 한 후, 바르트의 신학, 특히 그의 강한 기독교론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학적 윤리학을 통한 교회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전개한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 또는 신의 존재가 가져오는 유용성에 기반하여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하우어워스는 반대하며 ‘자연신학’이 아닌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5) 위의 책, 168.

6) 위의 책, 171.

7) 위의 책, 172.

8) Stanley Hauerwas, *With the Grain of the Universe: The Church's Witness and Natural Theology*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1).

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II.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 속 증인의 개념

하우어워스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시영은, “한국교회,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의 응용”¹⁰⁾ 등의 논문을 비롯하여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맞는 변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하우어워스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비판적 해석들 중 대표적으로는 김현수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가 있다.¹¹⁾ 그는 이 논문에서 하우어워스의 초기 저작에 대한 광범위한 정리와 해설로 이해를 도우며, 특히 하우어워스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윤리학자인 글로리아 알브레흐트(Gloria Albrecht)와 신학자 데이비드 퍼거슨(David Fergusson)의 작업을 주로 이용하여 하우어워스의 이른바 ‘교회 윤리’는 세상과의 대화에 침묵하는 소중파적 특징과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김현수의 비판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은창과 이용주는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김현수가 데이비드 퍼거슨의 연구를 기반으로 비판한 하우어워스의 이른바 ‘반-자유주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정치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 논문은, 하우어워스는

9) 위의 책, 205~241.

10) 문시영, “한국교회,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의 응용,” 『기독교사회윤리』 31(2015), 39~63. 특히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을 한국적 맥락 속에서 읽으며 환대와 공감으로 이끌어 낸 그의 최근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문시영,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1(2021), 139~168.

11)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1(2011), 31~70.

12) 이은창 외, “교회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71~100.

바르트의 신학이 자신의 교회 윤리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바르트는 달리 교회를 세상과 철저히 분리 시킴으로써 대립관계로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단지 대립해 있기만 한” 공동체로 잘못 오해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적 윤리학에서는 공동체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¹³⁾

본 논문은 이러한 앞선 논문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하우어워스 읽기에 더하여 증인이라는 대안적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그의 신학적 윤리학에 대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을 유용하도록 돕고 학문적 대화를 풍성히 하고자 한다.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써 세상으로부터 퇴거하지 않으면서도 비폭력적인 긴장관계를 회피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개별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교회됨’이라는 논지의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우선 하우어워스의 증인 개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증인 개념을 통해 앞서 제기된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점, 특히 공동체와 개인의 대결, 그리고 분파주의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또는 철회에 대해 대안이 될 만한 논지 또한 함께 전개해 나가려 한다.

1.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기독교 신앙에서 증인(witness)은 가장 먼저 순교자(martyr)를 상기시킨다.¹⁴⁾ 하우어워스는,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로 로마를 이겼다”라고 말

13) 위의 논문, 96.

14) Allison Trites,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Wit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영어로 ‘순교자’라는 단어 ‘마티(martyr)’의 유래가 그리스어, ‘마르투스(martus, μάρτυς)’에서 비롯되었고 관련 파생어들은 바로 이 증인 또는 목격자를 뜻하는 ‘마르투스’에서 기인한다.

한다.¹⁵⁾ 순교자 또는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이해다. 즉, 로마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로마의 이야기에 종속시키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순교자, 즉 기독교 증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¹⁶⁾

물론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이 증인은 교회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의미한다. 하우어워스는 바르트의 신학에서 강력히 주장되는 ‘그리스도 안(In Christ)’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틀을 이어받았지만, 하우어워스가 볼 때 바르트가 교회교의학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구체성을 간과하고 있기에, 하우어워스는 이 구체성에 있어서 진리를 살아가는 교회를 주목함으로 바르트의 신학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¹⁷⁾ 교회의 예전과 신조, 공동체적 삶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개별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학이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이해되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맥락이라고 하우어워스는 강조한다.¹⁸⁾

15)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38.

16) 위의 책.

17) Stanley Hauerwas, *With the Grain of the Universe*, 240. 여기엔 당연히 교회의 개별 성도들을 포함한다.

18) Stanley Hauerwas, *The Work of Theology*, 116, 124, 273.

1) 하우어워스의 공동체 1: 현대의 공동체

하우어워스에게 있어 공동체는 하나의 증인이나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는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진실함이 진실되지 아닌지를 증명하도록 끊임없이 시험(test)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실되게 사는 것은 그 이야기가 가진 진리를 진실되게 실천할 “진실함(truthfulness)”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¹⁹⁾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성품은 개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드러내기 위한 주요 통로이자 방식이다. 공동체가 지키고 전수해온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말이다.²⁰⁾ 즉, 성품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우어워스는 주장하는데, 이러한 개인들이 공동체의 이야기로부터 받은 특정한 종류의 삶들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서 비롯된다.²¹⁾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기반하여, 개인의 진실한 증언은 진실된 이야기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에 의해 공급되는 기술과 같다. 즉, 개별 인간, 더 구체적으로는 각 공동체 구성원이 바로 진실함의 기술이다.

이것을 교회에 대입하자면, 성경의 공동체적 읽기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읽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이야기인 성경을 읽고 그로써 개인의 자기 기만을 예방하고, 윤리적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우어워스는 말한다.²²⁾ 그에게 있어서 공동체

19)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43;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135.

20)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76.

21) Stanley Hauerwa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21. 하우어워스에게 이것은 비단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예다.

적 성경 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윤리적 실천은 죄에 대한 고백과 낯선 것에 대한 환대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한가의 척도는 낯섬에 열려 있는 것과 비례하다고 하우어워스는 주장한다.²³⁾ 그 진실함은 바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진실하게 살아낼 때에 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공동체는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그가 그려온 공동체는 이렇게 환대를 통한 열린 공동체로의 적용이 가능하다.²⁴⁾

다시 말하지만, 이런 증인들은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발생하는 기술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도덕 생활은 공동체의 도덕 신념과 분리될 수 없기에, 낯선 이를 맞이하는 공동체의 도덕 신념은 그에 걸맞은 개별 구성원들의 성품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개별 구성원들의 성품으로 이뤄지는 도덕적 선택은 다시 공동체의 성품을 발현한다.²⁵⁾ 이로써 성품의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다져지게 된다. 진실함의 기술 그 자체인 성품의 사람은 숙명처럼 다가오는 예기치 않고 통제되지 않은 사건과 사고, 고통들을 환대 할 수 있다. 그러써 이 증인이자 증인이 체화한 기술인 성품의 사람은 그 스스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는, 다시 말해, 공동체에 부여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성”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런 개별 증인들, 또는 성품의 사람들이라는 기술이자 선물을 통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자기기만을 인식하게 되고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을 직

22) 위의 책, 82~100.

23)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64~69.

24) 문시영,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160~161.

25) Stanley Hauerwas, *The Hauerwas Reader*, eds.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Duke University Press, 2001), 592.

26)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10;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Eugene, Oregon: WIPF & STOCK, 1988), 53; 문시영,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159.

면할 수 있다.²⁷⁾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 된다.

2) 하우어워스의 공동체 2: 권위의 구조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들 중 하나는, 그가 공동체를 강조하다보니 개인의 자유 보다는 공동체의 권위를 우선시하며 개인의 가치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종류의 비판일 것이다.²⁸⁾ 특히 그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백인 남성이라는 배경과 연결시키며 곡해하곤 한다.

하우어워스에게 권위란 사회 문화적 개념들과 이론적 논증으로 우선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실제로 체화시키고 삶 속에서 구현해 내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다.²⁹⁾ 특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다. 이 말은 비뿔 말하자면, 하우어와스가 생각하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 그의 삶,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연결된 제자들과의 관계와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결국 성경 안에서 구체화 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하우어워스가 이해하는 공동체의 권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구체화 된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현실화 될 때 실체가 된다.³⁰⁾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현실화 된다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역사, 전통, 기억의 행위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27) 위의 논문.

28) Gloria Albrecht,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Toward an Ethic of Liberation for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Linda Woodhead, "Can Women Love Stanley Hauerwas?: Pursuing an Embodied Theology," in *Faithfulness and Fortitude: In Conversation with the Theologic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ed. Mark Thiessen Nation and Samuel Wells (Edinburgh: T. & T. Clark, 2000).

29) Stanley Hauerwas,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167; John Berkman, "Introduction" in *The Hauerwas Reader*, 8.

30) Stanley Hauerwas, *The Hauerwas Reader*, 373.

살아내려는 개별 성도들의 삶이 없다면, 성경의 권위,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³¹⁾

물론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즉 개별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대한,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하우어워스는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려할 것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순종은 순종을 결정한 그 사람에게 “그 관계에서 상당한 힘(considerable force in the relation)”을 준다.³²⁾ 둘째, 순종을 결정한 사람은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된다. 순종의 주체자는 반드시 본인이 순종하는 대상이 적법하고 옳은 권위인지 질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³³⁾ 그러므로,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공동체의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주어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 공동체의 삶은 필수적이며, 성경적 권위는 교회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다.

하우어워스에게 권위는 자유에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자유가 필요한 구조다. 즉, 하우어워스가 이해하는 권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폐쇄되고 개인을 억압하는 공동체가 아닌 자유의 공동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별 도덕 주체자의 도덕적 권위는,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개별 구성원들과 연결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³⁴⁾

3) 하우어워스의 공동체 3: 증인, 공동체로 참여하는 과정

하우어워스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인정

31)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60. Cf., David Kelsey, *The Uses of Scriptures in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208~209.

32) Stanley Hauerwa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35.

33) 위의 책.

34)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60.

되는 권위를 통해 연합을 만들어 간다. 이런 종류의 권위를 통해 공동체와 개별 구성원들 모두가 수행하는 연합된 행동이 바로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에서 말하는 ‘증언’ 또는 ‘증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선을 위한 행동 안에 있을 때, 공동체 구성원의 개별적 실천 또는 삶은 그 자체로 ‘증언’이며 그에 합당한 권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동체에 부여된, 그래서 흔히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권위는 그 개별 구성원이 증인으로서 얼마나 진실한가에 좌우된다.³⁵⁾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권위는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다시 기반한다.³⁶⁾ 하우어워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우어워스 연구자 중 한 명인 사무엘 웰스(Samuel Wells)에 따르면, 이것은 개별 도덕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도덕적 선택과 결정은 공동체의 맥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³⁷⁾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 또는 진리라고 불릴만한 핵심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공동체의 사람들, 즉 증인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우어워스에게 있어서 증언을 하는 것 또는 증인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이야기 안에서 발견된 확신을 현실에 구현해 내기 위해 살아낸다는, 바로 그 ‘참여’라고 하는 통일되고 일관된 과정을

35) 위의 책. Cf., Yves Simon, *A General Theory of Author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127. 하우어워스는 프랑스 정치철학자인 이브 시몬(Yves Simon)의 이론을 이용하여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설명한다.

36) 위의 책.

37) Samuel Wells, *Transforming Fate into Destiny: The Theologic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Cumbria, U.K.: Paternoster, 1998), 42~43.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2. 교회로서의 증인

하우어워스는 공동체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로 나아간다. 그에게 교회는 반드시 증인된 공동체여야만 하고, 증인된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여야만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하우어워스가 생각하는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바꾸거나 개혁하는데 있지 않고 신실한 교회가 되는데 있다.³⁸⁾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신실함은 진실함의 기술과 빼놓을 수 없다.³⁹⁾ 또한 하나의 윤리로서 교회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말할 때 하우어워스는, 교회란 “예산, 건물, 주차장, 파틀락 저녁식사, 다음 [담임]목사가 누구여야 할지에 대한 열띤 토론 등등이 일어나는 기관(institution)”이라는 것이다.⁴⁰⁾ 이 특정한 일들과 대화의 주제를 갖는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일관되게 두드러진 한 종류의 덕(virtue)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⁴¹⁾

1) 증인으로서의 교회: 예배의 공동체

“교회의 첫 번째 정치적 사명은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우어워스는 강조한다.⁴²⁾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우선된 방법은 예배이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38) Stanley Hauerwas, *Truthfulness and Tragedy*, 12.

39) 위의 책.

40)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7.

41) 위의 책, 102~103.

42) Robert Dean, “For the Life of the World: Jesus Christ and the Church in the Theologies of Dietrich Bonhoeffer and Stanley Hauerwas,” (ThD diss., Wycliffe College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2014), 143. Cf., Stanley Hauerwas, *Disrupting Time: Sermons, Prayers, and Sundries* (Eugene, OR: Cascade, 2004), 182.

필수적 요소로서, 그에 따르면, 교회의 덕목인 예배를 통한 훈련으로부터 받는 여러 암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의해 사로잡혀져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인지하게 한다.⁴³⁾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예배는 인간의 죄인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천국의 일부로서 그의 의지를 따라 만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을 고백하며 증언 하기 위한 교회의 가장 구별되고 심오한 실천이라고 강조한다.⁴⁴⁾ 그에게 예배는, 교회란 단순히 공간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감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인간 역사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⁴⁵⁾

예배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살아감을 드러내는 증언의 행위이다. 그래서 예배는 효율을 말하지 않고 거룩함을 말하며, 폭력을 얘기하지 않고 비폭력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 한다. 예배야말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는 진정한 실체를 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성도로 빚어가는 증언의 행위이다.⁴⁶⁾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실체를 공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일시적인 시간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⁴⁷⁾ 이로써 예배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는 윤리 그 자체가 된다.

43) Stanley Hauerwas, *In Good Compan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156.

44) 위의 책, 156~159.

45) Samuel Wells, *Transforming Fate into Destiny*, 116, 142~149.

46)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0.

47)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 Fides, 1974), 67.

2) 증인으로서의 교회: 창조적 대안으로서의 공동체

교회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진리에 신실한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철회가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정치적이며 도덕적 활동을 통해 드러낸다.⁴⁸⁾ 교회는 폭력 없이 “올바른 종류의 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피조물이다.⁴⁹⁾ 성품의 공동체로서 증인인 교회는 세속 사회와 반대로 보여질 수 있는 특정한 관점과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⁵⁰⁾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워스는, 교회는 오로지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길”을, 세상의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⁵¹⁾ 이 말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영역들을 부정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우선적으로 세상과의 일치를 추구하거나, 국가나 세속 사회가 부여하는 집단적 특성의 정체성에 묶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비폭력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러했듯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 관여는 세상의 폭력적인 정치 시스템과 긴장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증인의 삶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평화와 비폭력의 사람들은 단순히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분쟁과 다툼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평화는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비폭력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논의에 참여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평화를 살아내야 할 책임 또는 사명이 있다고 하우어워스는

48) Stanley Hauerwas, *The Work of Theology*, 104.

49) Samuel Wells, *Transforming Fate into Destiny*, 100.

50) Stanley Hauerwas,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211~212. 하우어워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맥킨타이어의 전통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따르고 있다.

51)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7.

주장한다.⁵²⁾

3) 증인으로서의 교회: 지역 교회와 공적 영역의 삶

세상과의 순응이라 부르든, 공적이성을 사용한 접점이라 하든 공적 정치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공성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듯이, 그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즉, 세상에 비추어 교회를 보는 것과 동시에, 역으로 교회가 어떻게 취급되고,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등 교회가 어떤 맥락과 역사 가운데에 놓이는지를 통해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공적 광장에서 일어나는 정치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정치공동체이지만, “중국의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 일하는 한국인 부부”와 같이 여전히 공적 영역이지만 조금은 다른 선교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음에 주목하며 교회의 증인됨은 바로 거기, 선교에 있다고 한다.⁵³⁾ 이것은 광역적 공적 광장이 아닌 지역적 맥락이라는 현실성과 특수성에서 존재하는 개별교회의 증인된 삶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삶은 반드시 비폭력적 방법을 취하되 기존의 세상이 영위하던 집단적 문화와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눈에 떨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거슬려야만 한다.⁵⁴⁾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로서 증언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의 대속의 죽음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부활 생명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증인들의 존재와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공적 이성과 정의에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바로 그것이 교

52)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91.

53) Stanley Hauerwas, *War and the American Difference*, 169.

54) 위의 책, 170.

회가 증인으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⁵⁵⁾ 마치 예수가 그러했듯 어떠한 “강제(coercion)”⁵⁶⁾없이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의 평화로서 세상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며 교회다. 그래서 평화가 곧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여야만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을 거부해야만 하며, 세상의 폭력이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수반되는 정치에 의해 교회가 이용되는 것을 주의하고 거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폭력의 정치와 윤리는 오히려 기독교 승리주의에 영향을 받은 듯한 한국교회의 이기주의와 반지성주의, 그리고 그로써 자초한 고통화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나눠 갖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 교회를 손쉽게 사유화 하려 한다.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의도한,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공동체인 교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넓게는 전쟁을 반대하고 국내로는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사(euthanasia)와 낙태의 문제 등 생명과 관련된 일들에 적극적으로 반대 및 대안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실제적인 노력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예배를 세속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자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통한 죄의 고백과 용서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⁵⁷⁾ 그것은 분명 작게 보이지만, 그러한 공동의 죄의 고백이야말로 예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5) 위의 책, 176.

56) 위의 책, 177.

57) 강영안, 『읽는다는 것』(서울: IVP, 2020), 151~166.

II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에서 발견되는 증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대안적 해석이 가능함을 논증하였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우어워스의 윤리는 여전히 강력하게 공동체 지향적이지만, 공동체의 구조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개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도덕 주체자이자 환대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구조도 공존한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보유하고 전수하는 핵심적 서사에 담긴 진실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이러한 공동체의 이야기에 담긴 진리에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공동의 권위가 발생한다. 둘째, 증인으로서 교회의 세상 속 위치는 다른 종교적 또는 문화적 공동체로부터의 저항과 특정한 관계 사이에서 긴장을 발생 시킬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내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주어진 새로운 언어이자 선물이라는 이해를 철회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우어워스에게 공동체는 개인의 도덕관념에 결정적 영향을 주며, 인간의 진실함 뿐만 아니라 자기기만을 깨닫게 되는 특정한 이야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워스에게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공동체여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심어진 덕목들을 살아내고 예배하는 교회여야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내는 특별한 기술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증인의 적용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적 성경읽기를 통한 죄의 고백과 부활 생명의 평화, 그리고 그에 기반한 환대와 섬김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증인의

길이며, 그렇기에 여전히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의 한국적 맥락 속 그 변용의 가능성은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안. 『읽는다는 것』. 서울: IVP, 2020.
-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1 (2011), 31-70.
- 문시영. “한국교회,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의 응용.” 『기독교사회윤리』 31(2015), 39-63.
- _____.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1(2021), 139-168.
- 이은창, 이용주. “교회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 연구: 하우어워스와 바르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71-100.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홍종락 역.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서울: 비아토르, 2021.
- Albrecht, Gloria.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Toward an Ethic of Liberation for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Berkman, John. “Introduction” in *The Hauerwas Reader*, ed. J. Berkman and M. Cartwrigh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1.
- Dean, Robert. “For the Life of the World: Jesus Christ and the Church in the Theologies of Dietrich Bonhoeffer and Stanley Hauerwas.” ThD diss., Wycliffe College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2014.
- Hauerwas, Stanley.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 Fides, 1974.
- _____.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 _____.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_____.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Eugene, OR: WIPF & STOCK, 1988.
- _____. *In Good Compan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 _____.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_____. *With the Grain of the Universe: The Church's Witness and Natural Theology*.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1.
- _____. *The Hauerwas Reader*, ed. J. Berkman and M. Cartwrigh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 _____. *War and the American Difference: Theological Reflections on Violence and National Identit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 _____. *The Work of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5.
- Kelsey, David. *The Uses of Scriptures in Recent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 Simon, Yves. *A General Theory of Author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 Trites, Allison.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Wit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Wells, Samuel. *Transforming Fate into Destiny: The Theologic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Cumbria, U.K.: Paternoster, 1998.
- Woodhead, Linda. "Can Women Love Stanley Hauerwas?: Pursuing an Embodied Theology," in *Faithfulness and Fortitude: In Conversation with the Theologic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ed. Mark Thiessen Nation and Samuel Wells. Edinburgh: T. & T. Clark, 2000.

논문투고일: 2022년 03월 12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 속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의 대안적 읽기를 제안하기 위해 공동체적 증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하우어워스의 이해를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하우어워스가 증인 개념을 사용하여 어떤 공동체를 상정하는지를 살펴본 후, 이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로서 구별되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살펴본다.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 속 공동체적 증인의 개념은 환대와 진실함의 주체로서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과 이야기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세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스탠리 하우어워스, 신학적 윤리학, 증인, 교회, 공동체
